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사편입생의 경험

김지미¹ · 박금숙² · 김영희³ · 정영주⁴

¹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²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³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외래교수 · ⁴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Experiences of Graduates Who Transferred to a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Program at a College

Ji Mee, Kim¹ · Keum Sook, Park² · Young Hee, Kim³ · Young Ju, Jeong⁴

¹*Department of Nursing, Dongnam Health University, Suwon,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Associate Professor*

²*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Iksan, Republic of Korea, Associate Professor*

³*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Iksan, Republic of Korea, adjunct professor*

⁴*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Iksan, Republic of Korea, Assistant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7권 제4호 2023년 12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7, No. 4, December. 2023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사편입생의 경험

김지미¹ · 박금숙² · 김영희³ · 정영주⁴

¹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²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³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외래교수 · ⁴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Experiences of Graduates Who Transferred to a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Program at a College

Ji Mee, Kim¹ · Keum Sook, Park² · Young Hee, Kim³ · Young Ju, Jeong⁴

¹Department of Nursing, Dongnam Health University, Suwon,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Associate Professor

²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Iksan, Republic of Korea, Associate Professor

³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Iksan, Republic of Korea, adjunct professor

⁴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Iksan, Republic of Korea,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and describe the experiences of graduates of the bachelor's transfer system with a college nursing program. **Methods :**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3 participants who had graduated from the bachelor's degree transfer program with the college nursing department. Interview were conducted in two groups, and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after obtaining consent from the participant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Results :** Fourteen categories emerged from the four main themes of (1) choice motivation: a big chance in my life, an attractive job recognized by self and others; (2) thoughts on nursing: patient care in clinical settings, various roles, jobs that require knowledge in the humanities and in-depth knowledge; (3-1) major courses (curriculum): inconvenient to complete general education courses, burdensome to complete major courses, difficulty getting into relationships and adapting to school life; (3-2) major courses (school and departmental support): unstable academic management, inadequate transfer student scholarship system, difficulty in sharing pre-information about academics; and (4) opinions on system improvement: operation of an independent undergraduate transfer system and recognizing the need for systematic student guidance. **Conclusion :** Findings of this study, based on the experiences of bachelor's degree transfer students with a college nursing program, indicate a need to explore various educational strategies and direction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such transfer programs.

Key words : Qualitative research, Focus groups, Education, Nursing, Graduat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임상 현장에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은 국가 및 관련 분야에서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OECD 자료[1]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상 간호 인력은 인구 천명 당 2015년 5.9명에서 2020년 8.4명으로 2.5명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 9.7명보다는 1.3명 적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간호사의 부족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중소병원에서 특히 심각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2].

간호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은 다양하지만, 그중 양적 대응으로 간호사면허 소지자를 늘리는 간호학과 정원 증대가 있다. 2008년 이후 전국적인 간호학과 신설과 입학정원 증원으로 2021년 기준 200개 이상 간호학과가 개설되었고 최근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700명씩 입학정원은 계속 증원되고 있다[3,4]. 게다가 최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호대학의 정원 외 선발인원을 10%에서 3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간호학이 아닌 학사학위를 가지고 간호대학에 편입학하여 단축된 기간에 전공을 이수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2023년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2018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5년간 한시적 제한을 재고하여 다시금 2028년까지 5년간 연장으로 개정되었고, 이러한 연장조치 배경은 간호사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라 밝히고 있다[5].

간호학이 아닌 타학문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간호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미국에서는 ABSN(Accelerated Second-Degree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간호 교육에 많은 이점을 보고하고 있다. AACN(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Nursing)의 2021년 설문조사는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과 졸업생 수가 모두 전년도보다 증가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한 학생들은 나이가 많지만, 의욕적이고 수업에서 탁월하며 임상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얻기를 열망한다고 평가하였다.

이들을 고용한 기관에서는 이 졸업생들이 정신·심리적으로 성숙하고 임상 기술을 익히거나 업무에 대한 학습이 빠르다고 인식하였다[6].

지금까지 전문대학 간호학과는 ‘정원 외’ 형태로 여러 가지 전형 경로를 통해 전문대학이나 대학졸업자가 입학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허용범위가 정원 내 일정 비율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선발이 일정하지 않은 일반편입은 있지만, 이는 일부 정원 내 결원된 범위에서만 충원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사편입은 각 간호대학의 입학정원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선발 가능하기 때문에 한시적이지만, 이전 편입학 인원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클 수 있다. 이러한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사편입제도는 COVID-19 사태와 함께 진행되었다.

전문대학 간호학과 85개 중 조사에 응답한 35개 대학의 학사편입실태를 보면 2019년 71명으로 전체 간호학과 재학생 수의 1.3%를 차지하였고, 2020년에는 81명으로 1.5%, 2021년에는 130명으로 2.2%, 2022년에는 146명으로 2.3%를 차지하여 매년 학사편입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7]. 더불어 학사편입제도의 한시적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전문대학 간호학과는 신입학 정원의 증가와 함께 정원 외로 늘어난 인원을 단축된 교육기간으로 운영해야 하는 학사편입제도가 시행되면서 간호학과 학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이를 알 수 있는 실제 자료는 부족하다.

또한 편입제도에 대한 선행연구가 일부 있긴 하나 대부분 일반대학에서 운영하는 편입제도에 대한 것으로 재학 중이나 졸업 후 이들의 학교생활 경험이나 취업 경험[8-11] 연구이며, 최근 도입된 정원 외의 확대된 학사편입제도에 관한 연구[12]는 일반대학 간호학과 학사 운영의 특징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으나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사 운영이나 학사편입생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사편입제도에 대한 학생 경험을 파악하여 최근 한시적 연장된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사편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사편입제도 졸업자를 대상으로 학사편입생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사편입제도 졸업자를 대상으로 학사편입생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적용한 질적 내용분석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사편입제도를 통해 졸업한 자로 학사 편입제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하였다.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회원 대학에 편입제도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연구목적설명을 한 후 연구 참여자를 추천받았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주제와 관련한 공통 특성을 가진 10명 내외 인원으로서 참여자들을 바꾸어 반복적으로 이뤄지며 잘 훈련된 진행자가 결정된 토론 주제를 가지고 유사한 배경을 가진 참여자에게 인터뷰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귀 기울여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연구 방법이다[13]. 본 연구의 참여자는 포커스 그룹 2개로 그룹 1은 6명, 그룹 2는 7명으로 총 13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여자 10명(76.9%), 남자 3명(23.1%), 평균 연령은 38.54 ± 10.33 세(범위 26~60세)이었으며, 결혼 상태는 기혼 5명(38.5%), 미혼 8명(61.5%)이었다. 대학 소재지는 경기 4명(30.8%), 전북 4명(30.8%), 전남 4명(30.8%), 서울 1명(7.6%)이었고, 학사편입 전 전공은 사회계열 5명(38.4%), 자연계열 4명(30.8%), 공학계열 2명(15.4%),

인문계열 2명(15.4%)으로 나타났다. 현재 취업자는 10명(76.9%)이었다.

3.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 참여자는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추천된 학사편입제도에서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연구 안내문을 제공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동의서 작성자에게 한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인터뷰 도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에 대한 철회가 가능하고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으며, 익명성을 보장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은 후 인터뷰 내용은 녹음하였고, 주요 인터뷰 내용과 비언어적 행동 등은 현장 노트를 통해 기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별도의 파일로 보관하며,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하고 암호화하여 개인 신상 확인을 불가능하도록 관리하였다.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답례로 소정의 참가비를 지급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의 개발과정

본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은 특정 주제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가진 집단을 구성하고, 그 주제에 관한 생각이나 인식을 얻기 위해 구조화된 형식에 따른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토론을 통해 참여자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13,14]로 하였다. 인터뷰 질문의 개발은 포커스 그룹 연구 방법[13,14]의 절차와 질문 원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연구자들이 연구 문제를 보다 명확히 한 뒤 도입, 전환, 주요 질문 및 마무리 질문을 포함한 질문의 초안을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팀의 검토와 토의를 통해 최종 질문을 개발하였다.

도입 질문 : 간호학과 학사편입제도는 어떤 동기로 선택하였나요?

전환 질문 : 선택 당시 간호(간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사람)으로 알고 있었나요?

졸업하면서 간호(간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사람)으로 알고 있나요?

주요 질문1 : 간호학과 전공이수과정 경험 중 교과
목 이수과정(교양, 전공, 이론 및 현장
실습, 교우관계, 교수 등)은 어떠하였
습니까?

주요 질문2 : 대학이나 학과의 학생 지원이나 행정
서비스는 어떠하였습니까?

주요 질문3 : 미래 간호학과 학사편입제도에 도움
이 될 만한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주
세요.

마무리 질문 : 간호학과 전공이수과정에서 좋은 추
억으로 남는 것이 있거나 그 밖의 학
사편입제도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
다면 해주세요.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진행과 자료의 수집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연구자들이 합의한 진행 지침
과 COVID-19의 감염확산 위험성을 고려하여 ZOOM
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는 2개의 그룹으로 구성하였으며, 개별적으로 선호하
는 날짜에 인터뷰 일정을 정하였으며, 인터뷰 시작 전
에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문을 다시 읽어볼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는 온라인 설문지
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당일에는 연구자가 본 연구를 소개한 후, 인
터뷰의 목적, 진행 방법, 주요 질문 및 시간 등을 설명
하였고, 모든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들에게 사전동의
를 구한 후 녹음을 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진행자와
연구자, 참여자의 자기소개 후 질문지에 근거하여 그
룹별로 실시하였다. 진행자는 모든 참여자가 자유롭
고 편안하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도록 유
도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3월 9일에서 3월
10일까지였으며, 인터뷰는 그룹마다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3) 자료의 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시 수집된 자료는 인터뷰 과정
중 녹음된 내용이 기록된 필사본, 진행자와 연구자들
이 작성한 현장 노트, 인터뷰 이후 정리한 디브리핑
노트이다. 연구자는 연구에 대한 어떠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얻은 인터뷰 내용에 기초
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Krueger[14]
의 기준을 따라 이루어졌다. 첫째, 연구 시작부터 연
구팀의 연구주제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사용에 대
한 이해도를 점검하였다. 연구팀은 모두 전문대학 학
사편입제도를 운영하는 학과에서 강의와 지도의 경험
이 있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 사용이나 질적 분석은
대학원에서 교과 이수 경험이나 게재 논문이 있어 연
구 진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진행 중에는 연구팀은 두 개 그룹 인터뷰 진행
에 모두 참여하였으며 인터뷰는 한 사람이 진행하였
고 나머지 연구자는 각자 현장 노트를 작성하였다. 셋
째, 각 그룹 인터뷰 직후 연구자들은 줌을 통해 면담
내용에 대한 주요 질문에 나온 답변, 특이한 점, 다른
그룹의 답변과 비교 정리하는 등 디브리핑을 하였다.
마지막은 전체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종료된 후에 각
그룹별 인터뷰 직후 작성된 필사본을 중심으로 현장
에서 작성한 노트, 디브리핑 노트 등을 모두 함께 놓
고 자료 분석에 임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은 특정한 철
학적 배경에 따른 근거이론이나 현상학적 접근과는
다르게 연구 질문을 기본 축으로 분석된다[15-18]. 따
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19]를 참고로 하여 연구 질
문을 기본 축으로 한 귀납적 내용분석이다. 분석과정
의 1단계는 본 연구의 질문별로 개별 연구자들이 반
복해서 읽고 의미 있는 주요 진술문에 밑줄을 그었다.
2단계는 연구자들이 모두 모여 밑줄 그은 주요 진술
문이 반복하여 나타나는지를 찾고 지속적으로 비교하
여 공통의 의미로 된 개념인 하위범주로 추상화하였
다. 3단계는 이러한 하위범주를 묶고 나누고 하는 과
정을 반복하면서 범주로 구분하였고 모든 단계에서
연구자 간 의견 차이는 분석 자료의 맥락, 빈도, 다양
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최종
합의된 결과를 끌어내었다.

5. 연구의 타당성 확보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시작부터 최종 인터뷰 종료까지 자료 분석을 위한 지침 [14]에 따라 체계적인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Krueger가 안내한[13] 것을 참조하였다. 신뢰성(credibility)은 자료수집의 체계적인 절차 준수로부터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가 편안하고 자유로이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질문하였으며, 연구자는 참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보이지 않는 압력이나 위협이 인터뷰 환경에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폈다. 자료 분석 시 연구자의 편견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합의된 결과 도출 후 참여자 2인에게 연구 결과가 참여자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검토 받았다. 더불어 질적 연구 심사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 1인에게 자료수집, 자료 분석, 연구 결과 도출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 받았다. 전이성(transferability) 측면에서 참여자의 경험 속에서 도출된 결과 속 의미이해를 돕기 위해 참여자의 진술문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이 다양한 경험 속에서 의미 있는 하위범주 및 범주로 도출되었다.

Ⅲ. 연구결과

간호학과 학사편입생의 경험은 ‘간호학과 학사편입제도를 선택하게 된 동기’, ‘간호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전공이수과정에서의 경험’,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총 184개의 의미 있는 진술문이 추출되었고, 이 진술문을 바탕으로 41개의 하위범주를 형성하였다. 이를 다시 추상화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14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주제 1. 선택하게 된 동기

참여자들은 ‘내 생애 절호의 기회’로 나에게 찾아왔고 간호사로 일하게 되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매력

적인 일’인 점에서 학사편입제도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1) 내 생애 절호의 기회

참여자들은 학사편입제도 선택 시 교육 기간이 3년으로 짧고, 수능 준비 없이 이전 대학의 취득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 지원하였으며, 더불어 나이 제한 없고 집에서의 접근성이 유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교육 기간이 단축됨]

“처음에 4년제라고 했으면 제가 도전하지 못했을 텐데 편입이라고 하니깐 그... 도전하는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편입제도에 대해서” (참여자4)

[이전 학사학위로 일거양득]

“수능을 또 1년 이상 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학교를 신입생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앞으로 4년이 좀 부담이 됐는데 좀 알아보니까 어차피 전직 대학교 졸업한 것도 있고...” (참여자11)

“학사편입은 그 전에 있던 학점으로 쓸 수 있더라고요 그... 학점을 가지고...” (참여자3)

[나이 제한 없음]

“의료업계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었는데...원래 학부를 졸업하고서는 (일)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구요 아무래도 나이 제약 없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서...” (참여자6)

[가까운 곳에서 다니기 편리함]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거리 위주로 학교를 찾아보고 지원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10)

2) 자타가 인정하는 매력적인 일

참여자들은 간호사가 전문직으로 남자도 할 수 있으며 해외 취업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안정적이면서 보람 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으며, 취업 및 재취업이 용이하고 타인들의 인정을 받는 매력적인 일이라 선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전문직으로 남자도 할 수 있는 일]

“전에는 경영학과를 전공했는데 이제... 그니깐...

나이에 따라서 좀 많이 그... 사회적 입지가 어려워지고요, 경력단절이 되면 재취업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나마 전문직을 생각했을 때 간호사로 생각을 많이 들어가지고 지원을 했었어요.” (참여자1)

“처음에 이제 간호학과 들어가기 전에 간호... 이제 남자가 무슨 간호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보통 여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동생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깐 오히려 여자 못지않게 남자 간호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좀 말을 해줘서...” (참여자12)

[재취업으로 갈 길이 많은 일]

“저는 해외 취업을 목표를 학사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참여자6)

“간호사는 임상 말고도 행정직도 많고 갈 수 있는 길이 많다고 생각이...” (참여자8)

“직장을 바꾸더라도 근데 이제 금방금방 취업이 되는 걸 보니깐 아 그래도 확실히 어느 정도는 좀 보장이 되어있으니깐...” (참여자11)

[안정적으로 보람되고 존경받는 일]

“아... 저는 당시에 좀 미취업상태였고요 그 직업관이 좀 사회구성원으로 기여하고 싶고 좀 안정적인 일을 찾고 싶었는데 그때 마침 간호학과 이런 학사편입이 눈에 들어와 가지고 ...” (참여자5)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간호사나 교사 선생님들은 다 존경을 받잖아요” (참여자13)

“어... 사실 그... 저는... 전 대학이 보건행정학과이기도 했고 병원 근무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병원행정직 하다가 간호조무직도 해보고 하다가 이제 조금... 나이 들면서 간호직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간호직을 하고 싶단 생각이 있었는데...” (참여자7)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이 권유하는]

“어... 저는 원래 다른 일 하고 있었다가 그냥 조금 안정적인 직업 찾고자 해서 간호조무사 학원을 갔었는데 거기서 모든 선생님이며 사람들이 아니 왜 굳이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려고 하느냐 그냥 간호학과를 가는 게 좀 더 나중을 위해서 좋겠다고 말씀들 계속 하시더라고요” (참여자10)

주제 2. 간호에 대한 인식

참여자들은 전공이수 이전과 이후에 간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경험을 진술하였다. 전공이수 이전에는 임상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한다고 인식하였다면 전공 이수 이후에는 인문학적 소양과 풍부한 지식이 요구되는 일이며 다양한 역할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1) 임상에서 환자 돌봄

참여자들은 간호란 환자치료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며 24시간 환자 옆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24시간 환자 옆에서 환자치료 및 회복에 도움]

“음... 저는 좀 제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어서 호호... 그 다음에 좀 수술도 몇 번 해서 그냥 간호사가 아 일단 기본적으로 환자를 케어 한다는 거는 인제 알고 있었고...” (참여자9)

“저는 그냥 ... 환자를 24시간 가까운 곳에서 돌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여자1)

[의사 진료 보조]

“처음에는 그냥...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를 돌본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참여자3)

2) 역할이 다양함

참여자들은 학사편입 후 전공 공부를 하면서 간호는 단지 환자를 돌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를 조율하고 환자의 건강에 책임을 질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행정업무 및 병동 관리, 나아가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업무 등 다양하고 많음을 알게 되었다.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를 조율함]

“어찌 보면 환자하고 의사하고 그 중간에 있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조율해야 할지도 알아야 되고...” (참여자9)

[환자·보호자 관리를 통해 환자의 건강에 책임을 짐]

“제가 0월 00일부터 인제 입사를 했으니깐 어... 보고 느낀 거는 일단은 어... 그냥... 널싱만 잘해야는

게 아니라 환자의 그 어떤 멘탈이나 그 뭐 보호자까지도 다 관리를 해야 되고...” (참여자9)

“이제 이 간호사가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여자12)

[병동 관리에 필요한 행정업무]

“어... 저는 이제 와서 공부해 보니깐 제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는 직업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단순히 환자로서만 항상 봤을 때는 투약과... 투약 정도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행정업무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병동을 관리하는 게 정말... 좀 크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참여자6)

[지역사회 건강관리]

“저는 그저 뭐지 임상 쪽으로만 생각으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모습만 생각을 했다면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나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는 것을 또 새롭게 깨닫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참여자1)

3) 인문학적 소양과 풍부한 지식이 요구되는 일

참여자들은 간호학을 이과적인 학문으로만 생각했지만 의료인들과의 관계 맺기, 환자들의 정서까지 보살펴야 하는 등 오히려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치열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인간관계 능력이 필수적인 능력으로 요구됨]

“아 네... 그... 아무래도 저는 간호학도가 이과적인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들어와서 보니깐 문과적인 감성이나 능력치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특히 행정과 인간관계, 관리 이런 것들이 정말 필수적인 능력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여자6)

[풍부한 지식이 요구됨]

“저는 이제 옆에서 늘 간호사를 지켜보면 참 지식이 풍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의사하고 독대를 해야 되고 같이 의학용어를 나눠야 되고 환자 상태에 대해서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

데 그... 몰라서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중략)...(그런데) 이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막상 제가 사실 중환자실로 취업이 됐거든요. 사실은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깐 정말 새로 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를 다시 또 깨달았어요.” (참여자4)

[치열한 노력과 준비가 요구됨]

“저는 들어가기 전에는 되게 취업이 잘되는 거로 얘기를 듣고 들어갔었는데 막상 졸업을 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취업을 하다 보니깐 느낀 건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정말 그 안에서도 버틸려면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병원의) 격차가 너무 심한 것 같더라고요. 환경이나 약간 월급이나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대우를 받으려면 더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야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10)

주제 3-1. 전공이수과정 경험 : 교육과정

참여자들은 교육과정에서 교양과목 이수가 불편하고, 전공과목은 부담되며, 교우들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웠으나 점차 학교생활에 적응되어가는 경험을 진술하였다.

1) 교양과목 이수가 불편함

참여자들은 교육과정 중 교양과목은 편입 이전에 수강했던 과목과 중복되기에 굳이 수업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또한 교양학점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었다고 진술하였다.

[전적대학의 교양과목과 중복적임]

“교양인 경우에는 사실 전... 전 대학에서 너무 다 배웠던 거라 가지고 중복이 되는 느낌이 너무 많아서 특히 영어나 그런 영어나... 저는 생물학 같은 거를 생명과학 전공이라서 안 들어도 되는데 이제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참여자6)

[교양학점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저희가 편입 1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깐 이제 학점 인정도 뭐 어떤... 그니깐 뭐 처음엔 10학점만 인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어떤 학생은 이십 몇 학점 인

정되고 어떤 학생은 뭐 몇 학점 인정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깐 제가 안되는 줄 알고 신청을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깐 이제 졸업할 때 학점이 부족하게 되었고...” (참여자10)

2) 전공 교과목이 부담됨

참여자들은 편입으로 1, 2학년 과정을 1년에 수강해야 하므로 힘에 부치고,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이 많았던 점과 임상 현장에서 실습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년 과정을 3년에 수행하는 것이 전공 공부에 있어서 부담된다고 하였다.

[1, 2학년 과목을 한꺼번에 들어서 힘들]

“1학년 전공과 2학년 전공을 한꺼번에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험 때는 하루에 4개씩을 보게 되니깐 이제 너무 부담이 되는거죠” (참여자9)

[전공의 학업량이 3년도 벽참]

“간호학과 들어가기 앞서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중략... 실제로 와보니깐 이제 고3 때까지 이렇게 공부하진 않았었는데 간호학과가 정말 공부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암기할 게 많고 공부량이 많다 보니깐 조금 적응이 안 되고 벽찼었는데 ...” (참여자12)

“코로나로 다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깐 이제 좀 아무래도 수업 참여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좀 더디고 진도라든지 따라가는 것도 좀 힘들었고” (참여자11)

[실습현장에서 많이 경험하지 못해 아쉬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온라인 강의를 해서 그나마 제가 공부할 시간이 많이 있어서 저는 그게 돕.. 도움이 됐었는데 단점으로는 실습이나 그런 걸 많이 하지 못하고 하다보니깐 거기 실습현장에서 배워야 할 걸 많이 못 배워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참여자10)

3) 관계 형성이 어려움

참여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편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한 일반 학생들과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기회가 줄어들고 있지만, 일반 학생들과 친해지는 것이 어려워 조별 활동이나 팀 과제 수행에 애로사항이 많았으며 개

인 과제를 선호하게 되었다. 편입생들은 편입생들끼리만 어울리는 경향이 있었으며 일반 학생들과 세대 차이를 느끼기도 하였다.

[세대 차이로 현역이랑 조별활동이 어려움]

“20대 친구들하고 뭔가 조별활동을 하거나 할 때 서로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근데 또 코로나다보니깐 친해질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참여자6)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그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해가지고 어린 친구들하고 많이 교류할 시간이 부족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이제 좀 동떨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참여자4)

[팀 과제는 부담스럽고 개인과제를 선호하게 됨]

“저는 이제 학교 때 팀 과제보다는 개인과제 하는 게 좀 더 마음이 심적으로 부담이 덜 했던 거 같아요. 왜냐면 팀 과제는 제가 만약 조금 잘못하게 되면 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그거로 인해서 또 교우관계도 흔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오히려 팀 과제는 부담을 느꼈고 개인과제 하는 게 조금 잘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참여자12)

4) 학교생활에 적응되어감

참여자들은 교수의 배려 혹은 비슷한 연령대의 학생들과 연결되어 교우관계가 형성되어갔고, 임상실습은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졌고, 특히 시물레이션 실습이 살아있는 수업으로 도움이 되었으며, 이론수업이 졸업 후 임상실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전공수업의 가치를 깨달아가며 학교생활에 점차 적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양한 연령대로 어울림이 가능해짐]

“연령대가 다양하니깐 이제 나름대로 연령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연령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연령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좀 어렵지는 않았어요” (참여자7)

“1학년 병리학 수업시간에 제 나이 또래의 다른 반 학생을 소개해주시더라고요. 그러가지고 언니도 되고 같은 나이의 친구가 됐는데 그분들하고 3년을 친하게 지내고 또 시험 볼 때도 서로 전화로 격려하면서 학창

시절을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께 참 고맙게 생각해요” (참여자13)

[이론, 임상실습, 시뮬레이션 실습 등 전공수업의 가치를 깨달아감]

“3학년 올라가서 전공과목을 들었을 때는 제가 원래 배웠던 전공이 아니라서 좀 어려웠고 이제 4학년 올라갔을 때 실습하고 같이 들으면서 그제서야 조금 적응이 되는..., 배웠던 이론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한 4학년 1학기쯤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참여자6)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실습이 있었어요 ...중략... 졸업을 막상 딱 해보니깐 아 정말 좋은 경험이었구나! 그런 위급한 상황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해보잖아요.” (참여자4)

“영적 과목 같은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런 뭔가 나 중에 호스피스 케어를 할 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참여자5)

주제 3-2. 전공이수과정 경험 : 학교와 학과의 지원

참여자들은 학사편입제도에 대한 학교나 학과의 지원에 대해 학사운영이 불안정하고, 편입생 장학제도가 미비하며 학사에 대한 사전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진술하였다.

1) 학사 운영이 불안정함

참여자들은 학과 조교나 교수들이 학사편입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행정 지원을 받는데 혼란을 경험하였으며, 시험 과목이 겹치는 시간표 작성에 오류, 지도교수가 비전공자이거나 자주 바뀌는 경험을 진술하였다.

[학과구성원이 학사편입제도 운영에 대해 익숙하지 않음]

“학과의 행정적인 서비스는 이제 편입생이 일반 편입하고 학사편입이 있어서 이제 뭔가 이수해야 되는 학점도 다르고 그런데 이것 잘 모르시더라고요.” (참여자5)

“무엇보다 그... 학사플랜이 학번마다 또 교과 과목이 틀려가지고 저도... 그 뭐지... 필수과목 때문에 학

과장님이랑 얘기 많이 했거든요.” (참여자2)

[시험운영이 뒤죽박죽]

“시험시간표도 1, 2학년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 ... 동시에 겹친 시간표도 있었고 ...” (참여자8)

“처음 시험 볼 때도 이제 시험 전에 미리 알림이 전혀 없어서 복도에 서성였더니 조교님이 왜 시험장소에 안 가느냐고 말씀하여 그때 급하게 방법 알게 된 것도 있었고.” (참여자10)

[익숙하지 못한 지도교수]

“학사편입생은 솔직히 과목이 듣는 게 좀 다르기도 하는데 좀 그... 어... 뭐라 해야지... 그... 지도교수님이 좀 간호학과 교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3)

“저희는 그... 지도교수가 좀 자주 바뀌었어요. 지도교수님이 특히 졸업 그 직전 2학기에도 막 새로 오신 교수님이 지도교수를 맡는 경우도 몇 번 있어서... 그... 물론 교수님들 바쁘시고 그런 것들 있겠지만 지도교수님은 웬만하면 변경이 안됐으면 좋겠다고 느낀 점이 좀 있었고.” (참여자11)

2) 편입생 장학제도가 미비

참여자들은 편입생이 우수한 성적임에도 장학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장학제도에서 배제된 경험을 진술하였다.

[우수한 성적임에도 장학금을 받지 못함]

“성적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편입생에 대한 장학금은 아예 없더라고요.” (참여자8)

[장학제도가 해당되지 않음]

“저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을 계속 받고 다녔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는데 그걸 못 받는 친구들이 가서 장학금을 받으려고 그걸 알아봤더니요 편입생은 전혀 그런 제도가 없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그게 어떤 연곤지 그냥 좀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여자4)

3) 학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어려움

참여자들은 편입생 선배가 없다 보니 편입생으로서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으며, 반 편성 시에 편입생을 각반에 1~2명씩 나누다 보니 실습 등의 수

업 시에 서로 의지할 수 없었던 경험을 진술하였다.

[편입생 선배가 없음]

“저희가 2기인데 1기에 대한 정보가 저희한테 전혀 없었어요 학교 들어가서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일반 4년제 대학은 편입 학생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기존 1학년과 2학년 겹쳤을 때 뭐 시험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지가 있는데 이게 저희 2기 때인 데도 없는 것이에요.” (참여자9)

[동병상련의 동료 없음]

“저는 그 일단 저희가 학사편입생이 6명이었는데 2학년 때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한 반에 6명...아 한 반에 5명 다른 반에 1명 이렇게 했는데 3학년 때 되니깐 한 명씩 다 찢어서 1반에 한 명 2반에 한 명 이렇게 다 찢어놓으니깐 다시 이제 사실 그룹을 할 수도 없는 게, 앞 반이랑 실습이 다르고 뒷 반이랑 실습이 다른 데... 이 6명을 한 반에 넣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 (참여자3)

주제 4.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참여자들은 학사편입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으로 독립적인 학사편입제도 운영과 체계적인 학생지도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1) 독립적인 학사편입제도 운영

참여자들은 교양 이수 과목을 조금 줄이고 학사편입생만의 독립적인 학점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직원이 학사편입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며 장학제도 또한 일반 학생들과 차별감을 느끼지 않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현행 3년의 교육기간이 전공 이수에 부담이 크고 힘든 경험이므로 2년으로 기간 단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적절한 교양학점 이수가 필요함]

“전 대학교에서 들었던 과목이 비슷하면 좀 빼주면 좋겠어요 이제 이름이 같으면 되는데... 과목은 내용이 비슷한데 이름이 달라가지고 안 되는 것도 몇 개

있었거든요” (참여자2)

[학사편입만의 학점제도]

“일단 학교 입장에선 어려울 수 있지만 학사편입만의 학점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2)

[명확한 학사행정 정보 공지가 필요함]

“행정적인 부분에서만 조금 저희가 혼동하지 않게... 저희 학교에서 혼동하지 않을 정도로 좀 그런... 규칙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2)

[장학금 지원 필요함]

“좀 차별받지 않고 장학제도 같은 것도 똑같이 현역하고 같이 받을 수 있었으면...” (참여자4)

[3년 과정이 적절함]

“편입 과정 기간 2년으로 단축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2년은 조금 무리라고... 제가 겪어보니깐 그런 거 같은데, 근데 2학년 과정은 조금 저는... 교수님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방학을 좀 이용해서 좀 집중도를 분산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참여자9)

2) 체계적인 학생지도가 필요함

참여자들은 편입생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멘티 제도를 활용하기를 희망하였고, 간호학 전공 교수를 지도교수로 배정하여 체계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편입생 선후배 제도로 1:1 관리가 필요함]

“학사편입 했을 때 2기여서 사실 1기 어떤 분한테 좀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렇게 좀 먼저 편입한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어주는 어... 그... 1:1 되게 해줬으면 좋겠고...” (참여자3)

[간호학 전공 교수가 지도하길 희망함]

“현역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아무래도 다시 학교를 다니는 사람을 위한 교수님의 코칭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간호학 전공 교수님이 담당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여자1)

[개별 혹은 집단 멘토링 제도가 필요함]

“근데 저희는 1기였기 때문에 선배가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 지도교수 그(일반학생, 편입생 구분 없이

Table 1. Transferred Students' Experience in Nursing Program at a College

Themes	Categories	Subcategories
Choice motivation	1) Big chance in my life	Shorten training period Take advantage of a previously obtained bachelor's degree No age limit Convenient to go
	2) An attractive job recognized by self and others	A job that is professional and can be pursued by men Easy re-employment and multiple career paths A stable, satisfying and respected job Recommended by family, friends or others
Thoughts on nursing	1) Patient care in a clinical setting	24-hour patient care and recovery support Assisting the doctor
	2) Various roles	Mediate the patient-doctor relationship Responsible for the patient's care Administrative tasks necessary for ward management Community health care
	3) Jobs that require knowledge in the humanities and in-depth knowledge	Interpersonal skills are essential Requires extensive learning and a wealth of knowledge Requires thorough effort and preparation
Major course: Curriculum	1) Inconvenient to complete general education courses	Duplicate liberal arts courses with previous universities The standards for recognizing liberal arts credits are not clear
	2) Burdensome to complete major courses	Difficult to take the first year and second year courses at the same time The amount learned in the major over the past three years is overwhelming Not experiencing much in practical field settings is regrettable
	3) Having trouble getting into relationships	Difficulty in group activities with general students due to generation gap Team assignments become burdensome and individual assignments are preferred
	4) Adapting to school life	Able to suit different age groups Learn the value of major classes(theory class, practice class, simulation class, etc.)
Major course: School, department support	1) Academic administration is unstable	Department members are not familiar with the bachelor's degree transfer program Messy test run Unfamiliar professor
	2) Inadequate scholarship program for transfer students	Not receiving scholarships despite excellent grades Not eligible for scholarship programs.
	3) Difficult to share academic affairs	Lack of peers who can relate to similar experiences No senior transfer students
System improvement opinion	1) Operation of an independent undergraduate transfer system	Use of a unique credit system for transfer to a bachelor's degree Provide clear information for management Appropriate liberal arts credit requirements Scholarship support A reasonable period is 3 years
	2) Systematic student guidance is needed	One-on-one mentoring system for transfer seniors and juniors Nursing department professor guidance Individual or group mentoring system

모든 학년을 연결하여 팀으로 멘토링을 지원하는) 제도에 스며들게 해주셨거든요 그 지도교수 학생들과의 모임이 이제 저희가 한 학기에 한두 번? 이렇게 있고 모든 학년을 다 만날 수 있으니깐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참여자7)

IV. 논 의

본 연구는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사편입생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질적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연구팀이 개발한 4가지 질문을 주제로 하였다.

주제1은 학사편입제도를 선택하게 된 동기로 ‘내생애 절호의 기회’이며 ‘자타가 인정하는 매력적인 일’로 경험의 진술문 속에서 구조화되었다. 편입제도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사회 평판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 교육을 받고 싶거나[20] 혹은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거나,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나은 취업 욕구를 충족할 새로운 교육 기회로 편입제도를 파악하고 있다[21]. 일반적인 간호학과 편입 동기는 적성이나 취업, 자기 계발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이며 진취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10]. 본 연구의 결과도 대체로 이와 다르지 않다.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사편입생의 이전 전공계열을 보면 사회계열이 41.9%로 가장 많고, 인문계열도 13.1%로 세 번째 순위에 있다[7]. 따라서 학사편입제도의 선택 동기는 적성에 부합된 자기 결정뿐 아니라 연령과 관계없이 현재 취업의 어려움을 겪거나 이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안정적이며 경제적으로 나은 취업에 대한 희망 사항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2는 간호에 대한 인식으로 ‘임상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이고 ‘인문학적 소양과 풍부한 지식이 요구되는 일’이며 ‘역할이 다양함’으로 구조화되었다. 참여자들은 2019년 전문대학 학사편입이 시작된 이후 2022년도와 2023년도 졸업생이고 대부분 취업했으나 취업한 지 1년여 정도이거나 대기 상태였다. 따라서 간호에 대한 인식은 학사편입제도에 진입 이전과 이

후로 생각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후 간호 교육에서 성과기반교육과정으로 제시된 간호 교육 인증에는 교양과목과 인문·사회관련 전공기초과목을 일정 학점 이수하도록 기준이 있다[22]. 이는 대상자인 사람에 대해 자연과학적 지식에 의한 신체적 이해는 물론이고 사회적, 정신적, 영적인 영역을 포함하여 간호사의 포괄적 이해가 요구되므로 이에 따라 목적 한 것이다. ‘간호학이 이과적 학문인 줄 알았다’고 토로한 본 연구 참여자의 진술 속에서 학사편입 교육과정의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의 간호에 대한 생각이 확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확대된 간호사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인식은 실제 사회에서 간호사면허를 가지고 일하는 직종이 지속적 증가하는 현실[23]에 대한 반영이라 생각된다.

주제3은 전공이수과정의 경험으로 첫 번째 하위주제는 교육과정이다. 참여자들의 경험은 ‘교양과목 이수가 불편하고’ ‘전공 교과목이 부담되며’, ‘교우와 관계 형성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학교생활에 적응되어가는 것’으로 구조화되었다. 전문대학 간호학과의 학사편입생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일반대학 간호학과에 학사편입생의 경험[10] 속에 나타난 관계 형성의 어려움이나 암기 위주 학습법과 함께 학업량이 많아서 쉴 틈 없는 교육 과정을 따라가기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본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국가적인 재난인 COVID-19로 상당 부분 비대면 수업과 실습으로 교우를 만날 기회가 부족한 상황은 더욱 관계 형성에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한편 동료의 지지는 학사편입제도를 무사히 마치고 졸업에 이르는데 남녀 모두 중요한 요소이다[24]. 학과 공부가 힘들지만, 교우와의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같은 편입생들의 지지가 학과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는 선행연구[10] 또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험이라 볼 수 있다. 편입생들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보고한 선행연구[8]는 편입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교육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중 하나가 수업이나 실습의 소규모 활동에서 생겨나는 소속감이 도움 될 거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공이수의 과정에서 학사편입생이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동료

의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하위주제는 학교와 학과의 지원이다. 참여자의 경험 속에서 이것은 ‘학사 운영이 불안정’하고, ‘편입생 장학제도는 미비’하며, ‘학사에 대한 사전정보 공유가 어려움’으로 구조화되었다.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사편입제도는 ‘정원 외’ 형태로 각 대학에서 선택 운영할 수 있다. 이미 간호대학은 정원 내 인원이 정책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간호사 인력 부족의 사회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대학에서도 학사편입제도를 간호학과에 한시적 허용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대학 간호학과는 정원 내 혹은 정원 외 인원이 늘어나는 현실에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건 좋긴 한데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일단 받으니까 학생들이 어려움이 더했다고 토로하였다. 이뿐 아니라 COVID-19로 학교나 학과와 대면 소통하지 못한 학생들이 불편함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정원 외의 형태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는 학교나 학과가 이들을 위한 정책이나 규정을 정하여 일관되게 운영할 동기 부여가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참여자들 대부분 장학제도가 미비했던 경험은 이미 일반편입생이 ‘경제적 부담’을 경험으로 진술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점으로[8,10] 학교로서는 규정에 없어서 제공하지 못한 것이지만 학생들은 재정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주제4는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으로 참여자들의 진술은 ‘독립적인 학사편입제도 운영’과 ‘체계적인 학생 지도가 필요함’으로 구조화되었다. 이것은 주제3의 학교와 학과의 지원에서 받은 불편함을 통해 개선을 바라는 의견으로 생각된다. 참여자들이 언급한 많은 제안은 학과의 전임교원이나 조교가 전담하여 개선이 가능해지는 요구들이다. 일반대학 간호학과는 단과대학 중심의 교학 부서를 운영하여 학과 중심의 교무행정을 비롯한 학과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비해 전문대학은 그러한 업무 지원을 못 받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수와 조교의 행정업무가 증대되고 책임만 가중된다.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사편입제도는 정원 외

의 인원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의 증가에 따른 지원기준에서 제외되고, 추가 학생수에 대한 별도의 지원인력이 없으므로 전임교원의 소진을 초래할 수 있다[12]. 전임교원 대비 학생 비율의 감소가 교육의 결과를 좋게 하므로[25] 전담인력 확보와 같은 적절한 지원체계를 통한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12].

한편 정부는 현재 대부분 3년으로 운영하는 학사편입제도를 2년으로 축소하는 집중간호학사 특별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의 추진 배경은 현재 운영 중인 학사편입제도가 부족한 간호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점을 들고 있으며 기존 학사편입제도의 기간 단축으로 등록금 부담감소와 기존 학생에 포함되어 관계가 어려운 점을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26]. 하지만 실습 교육에 필요한 임상실습기관 확보가 어려운 대부분의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는 2년 기한 집중과정 운영 여건을 갖추기엔 해결해야 할 조건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도 이러한 집중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인적, 물리적 환경요건 등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을 제시하고 일정 학생 수 규모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운영하는 학사편입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사편입제도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교양이수학점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여 전적 대학의 교양과목 인정과 불필요한 과목 이수를 줄여야 할 것이다. 전적 대학의 교양과목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둘째, 학사편입제도의 학사 운영 관련 정보는 일정한 소통 창구를 통해 명확하게 상호교류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무행정 지원 혹은 교수와 조교로 구성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책임 있는 소통으로 혼란을 피해 학사편입생의 학업 수행이 원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장학금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사편입생들의 우수한 성적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박탈감

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교내 성적장학금 대상 선발에서 일정 비율 포함하고, 지역 임상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교외 장학금 지원을 발굴하여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과정 구성 원리를 유지하는 순차적인 교육과정 이수와 전공 이수에서 강의식으로 많은 학업량을 전달하는 전통적인 교수학습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핵심적인 내용으로 선택과 집중에 따른 학업량을 조정하고 문제해결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사편입생의 첫 1년 1, 2학년의 과목을 동시에 수강할 때 선수과목으로 온라인에서 이수하거나 방학의 계절 학기를 활용하여 학업 부담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학사편입생의 학과 적응을 돕는 다양한 형태의 지도와 지지가 필요하다. 편입생으로 이루어진 선후배 제도, 전공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일반학생과 편입생을 모든 학년으로 연결해주는 팀으로 구성하여 지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비대면의 화상을 통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이므로 대면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집단 상호작용에 제한되었을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은 학사편입생의 또 다른 경험은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 결과는 참여자의 인터뷰를 통한 학사편입생의 경험에 대한 자료가 포화상태를 이룰 때까지 수집하여 분석하였기에 2019년부터 시작된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사편입제도 운영의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학생들의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사편입생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줌을 이용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을 적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질적으로 내용분석 한 것이다. 참여자들에게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사편입제도는 단축된 교육 기간으로 매력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생애

절호의 기회였으나, 이전과 다르게 대부분 비대면 수업으로 교우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간호사에게 필요한 방대한 지식으로 인한 부담스러운 학업이 임상실습에서의 연계를 통해 조금씩 해소되며 전공 이수하는 학교 생활에 적응되어갔음을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알게 되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학교와 학과의 학사 운영도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참여자들은 인식하였다.

현재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사편입제도는 5년의 한시적 허용이 2028년까지 다시 연장되었기에 졸업생의 경험을 통한 본 연구 결과는 남은 기간까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사편입제도 운영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사편입제도가 한시적일지라도 학사 운영의 어려움이나 개선사항을 간과하는 것은 이 제도의 이해관계자 중 학생에게 선택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사편입제도를 운영하는 전문대학은 학과의 운영 부담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만족스러운 학업 과정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운영방식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한시적인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사편입제도가 추후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 활성화의 일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제도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사편입제도를 운영하는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과의 운영의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전략 모색과 학사편입제도 졸업 이후 취업 분야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인력 수급에 기여 정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Ministry of Health & Welfare. OECD health statistics 2022 [Internet]. Seoul: MOHW; 2022 [cited 2023 May 10]. Available from: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2297
2. Jang BK. Employment behavior of nursing person-

- nel, measures to prevent turnover, and measures to improve adaptability. *Hospital*. 2022;Spring:44-45.
3. Korean Nurses Association. Main status of nursing statistics [Internet]. Seoul: KNA; 2023 [cited 2023 July 20]. Available from: <http://www.koreanurse.or.kr/resources/statistics.php>
 4. Kwak SS. Nursing quota increased by 700 in 2024 [Internet]. Seoul: Young Doctor; 2023 [cited 2023 July 5]. Available from: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3281>
 5. Shin HY. 5-year extension of '30% undergraduate transfer rate' due to nurse manpower shortage [Internet]. Seoul: Edaily; 2023 [cited 2023 July 5]. Available fro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25366635575136&mediaCodeNo=257>
 6.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Nursing. Fact Sheet: Accelerated Baccalaureate and Master's Degrees in Nursing. 2022. from <https://www.aacnnursing.org/Portals/0/PDFs/Fact-Sheets/Accelerate-Programs-Fact-Sheet.pdf?ver=YmTEaYzZEfgA6iqvehhCyQ%3d%3d>
 7. Korean Deans Association of Nursing College. Investigation of general transfers and undergraduate transfers to junior colleges. 2023.5
 8. Sin GL, Cha EJ, Kim YH. The lived experience of a student transferring into the nursing progra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3;33(6):722-730.
 9. Kim YK, Cho MO, Yang JH. The experiences of identity developing among the enrolle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2005;6(1):15-31.
 10. Yeo HN. University lif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 transfer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9;20(8):503-513.
 11. Kim KH, Hwang EH. Nursing transfer-students' employment experience.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2019;20(2):150-159. <https://doi.org/10.22284/qj.2019.20.2.150>
 12. Yang SH, Cho E, Kim JS, Lee H. Accelerated second-degree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program in South Korea: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0;26(2):123-131.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2.123>
 13. Kim SJ, Kim HJ, Lee KJ, Lee SO. Focus group method. Seoul: Hyunmunসা; 2000. p.141-169.
 14. Krueger RA. Analyzing & reporting focus group results(Focus group kit6). Thousand Oaks, CA: Sage; 1998.
 15. Sandelowski M. Whatever happened to qualitative description?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000;23:334-340. [https://doi.org/10.1002/1098-240x\(200008\)23:4<334::aid-nur9>3.0.co;2-g](https://doi.org/10.1002/1098-240x(200008)23:4<334::aid-nur9>3.0.co;2-g)
 16. Elo S, Kyngäs H.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8;62(1):107-115.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7.04569.x>
 17. Graneheim UH, Lundman B.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nursing research: concepts, procedures and measures to achieve trustworthiness. *Nurse Education Today*. 2004;24(2):105-112. <https://doi.org/10.1016/j.nedt.2003.10.001>
 18. Hsieh HF, Shannon SE.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005;15(9):1277-1288. <https://doi.org/10.1177/1049732305276687>
 19. Lee BS, Eo YS, Lee MA. Leadership experience of clinical nurses: applying focus group interviews.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2015;45(5):671-683.

- <https://doi.org/10.4040/jkan.2015.45.5.671>
20. Oh YJ. A study on the university life of transfer students after transference.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006;24(2):451-474.
21. Han YK, Yoon SK, Kwon MK. Critical review of college students' transfer and countermeasures in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Education Inquiry*. 2013;31(3):63-84.
22.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Nursing education certification evaluation criteria. Seoul: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7.
23. Shin MJ, Kim SJ, Kim JM, Kim HK, Nam JJ, Lee JY, et al. *Nursing management*. 2nd ed. Paju: Hyunmunsa; 2020. p.507-515.
24. Abshire DA, Graves JM, Roberts ML, Katz J, Barbosa-Leiker C, Corbett CF. Student support in accelerated nursing programs: gender-based perspectives and impact on academic outcomes. *Nursing Outlook*. 2018;66(1):84-96.
<https://doi.org/10.1016/j.outlook.2017.08.010>
25. Bautista JR, Ducanes G, David CC. Quality of nursing schools in the Philippines: trends and evidence from the 2010-2016 nurse licensure examination results. *Nursing Outlook*. 2019;67(3):259-269.
<https://doi.org/10.1016/j.outlook.2018.12.012>
26. Choi MJ. Becoming a nurse in 2 years... nursing bachelor special transfer review [Internet]. Seoul: The JoongAng; 2023 [cited 2023 March 11]. Available fr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7789#home>
-